1200년 전 기도처, 땅 속서 모습 드러내

日, 연기설화 유물 실존 밝혀져
퇴적 · 지진으로 모습 감춘 바위
'다이젠지' 주지스님 공력으로
지표 1.5m 아래 묻힌 것 발견

박영빈 객원기자

8세기경 일본 고승 코보대사(弘法大師)가 세운 암자의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위가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코치 텔레비전' 'FNN 프라임' 등 현지 언론들은 2월 6일 놀라운 발굴 현장을 특별보도했다.

고치현(高知県) 스사키시(須崎市)에 위치한 진언종 사찰 다이젠지(大善寺)가 관리하는 암자인 '후타츠이시 대사당(二石大師堂)'은 1200년 전 일본 진언종 개조인 코보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당 연기설화에 따르면 현재 다이젠지는 본래 바다로 돌출한 육지인 곶으로, 주위는 단애절벽이었다. 그 앞으로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있어 간조시에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에는 산을 넘어가는 지름길로 지역주민들이 왕래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파도로 사상자가 나오자 코보대사는 바위에 올라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며 해난을 방지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어 직접 조성한 불상을 모신 암자를 세우자 바위가 더 이상 바닷속에 잠기지 않고 사고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후타츠이시 대사당 연기설화다.



발굴된 바위를 설명하고 있는 다이젠지 주지 다카하시 스님. 사진출처=고치신문

시간이 흘러 두 바위는 계속되는 퇴적과 지진 등으로 그 모습을 완전히 감췄다. 현재는 바다와 바로 접해있었을 다이젠지에서 250m나 떨어진 곳에 해안선이 형성돼 있다. 바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기록과 구전으로 지역에 전해져 왔으나 정확한 위치는 전해지지 않아 전설 속 존재로 치부돼 왔다.

다이젠지 주지 다카하시 시게노부 스님은 사찰 연기설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 대사당을 관리하면서 바위의 행방을 조사해 왔다. 스님은 "300여 년 전 대지진 전까진 위치와 모양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에 실존하는 유적이라 믿고 오랫동안 조사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역주민의 제보가 들어왔다. "27년 전 일이다. 산문 맞은편에 사는 주민이 바위 이야기를 듣고 '자택 근처에 바위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겠다' 고 말했다. 실제 그 집은 오래전 대사당 부지로 추정되는 곳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2017년 해당 주택을 구입한 다카하시 스님은 1월 21일 주택 해체공사를 마치고 발굴에 들어갔다. 바위 매립이 추정될 뿐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에 실패 위험성도 컸다. 그러나 바위가 지상으로 드러났다. 당시 땅을 팠던 굴삭기 기사는 "부지 안쪽에서부터 파낼 때는 삽날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으나 5시간가량 파내던 중 커다란 물체가 닿았다"며 바위가 발견되던 순간을 회상했다. 바위는 지표면에서 1.5m 가량 지하에 묻혀있었다.

지상에 드러난 부분만 가로 6.5m, 세로 3.5m, 높이 2.5m의 거암. 전체적으로 흑갈색 바위에는 파도에 침식된 흔적과 따개비 등의 조개껍질이 남아있어 연기설화의 내용처럼 바닷가에 접해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카하시 스님은 "발굴된 바위는 설화 속에 등장하는 두 바위 중 서쪽 바위로 추정된다"며 "전설 속 물건을 찾는다고 비방하던 사람도 있었기에 감격스럽다. 그동안의 믿음을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발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도 "실제 바위가 있다는 것에 놀랐다"며 "바위 위에서 코보대사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이젠지 측은 "현재 발굴된 서쪽 바위에서 15m가량 떨어진 곳에 동쪽 바위가 있다는 제보와 여러 추정이 있지만 또 다른 주택이 있기에 현재로서는 발굴 예정은 없다"고 전했다.

中, 인터넷 신행활동 규제 나서

SNS 신행단체 폐쇄…온라인 법회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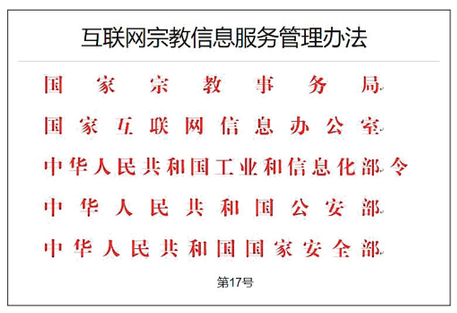
3월 1일 시행…위반 시 형사처벌

"티베트 불교 노린 것" 반발 일어

최근 중국 내에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동부 티베트 사원과 불상을 철거한 데 이어 인터넷상의 신행활동도 규제 및 금지에 나섰다. '티베트 워치' '프리 티베트 뉴스' 등의 외신은 2월 2일 중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와 그 반향에 대해 전했다.

중국정부소속의 국가종교사무국은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를 위한 조치' 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률을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공표했다. 이 법률은 국가종교국을 포함해 인터넷 정보국, 산업 정보부, 공안부, 국가 안보부 등 5개 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했다. 3월 1일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중국에 전해진 종교의 온라인 활동과 법문, 신도교육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 외 종교단체의 교육도 전면 금지되며 관련된 모든 인터넷 계정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

国 家 宗 教 事 务 局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令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公 安 部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国 家 安 全 部
第17号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인터넷 상의 종교활동 규제법령. 사진출처=중국 국가종교사무국

특히 이번 법률 중엔 성직자, 혹은 종교법인도 인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그 어떠한 종교활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 사찰에서 진행되는 법문과 수계, 관정, 예불 등에 대한 생중계도 전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대한 녹취, 사진, 녹음도 할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이에 대해서는 최대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해당 명령이 발표된 이후 중국 내 불자들이 모인 SNS 기도회나 지도법사,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행단체들에 대한 폐쇄 및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특히 티베트 지역 온라인 불교신행단체, SNS 단체 대화방들이 폐쇄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해당 그룹들은 주로 성지순례정보, 재일기도공유, 방생, 큰스님들의 법문요약 등을 공유하는 방으로 정치적인 색채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 누리꾼은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법회가 활성화 되면서 신행활동이 쉬워졌다"며 "특히 해외로 망명한 큰스님들이 많은 티베트의 경우 해외에서 진행되는 법회를 티베트 현지 불자들이 참석하기 용이해졌다. 법문과 수계에 대한 생중계의 금지와 해외 종교활동의 전면적인 금지 조항은 명백히 티베트 불교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률발표를 주도한 국가종교사무국은 중국내 종교단체들을 통제하는 중앙정부기관으로 중국내 불교단체들은 모두 해당 사무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불교협회의 통제 하에 있다. 중국내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중국정부의 잦은 정책변경과 규제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17세기 문맹자 위한 그림 문자 〈반야심경〉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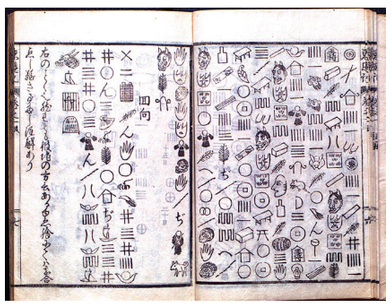
문맹자는 어떻게 〈반야심경〉 독송할 수 있었나

동물 등 이미지서 음절 끌어내
현대인에 탈문맹 방향성 제시

세계 이모티콘의 날을 맞아 미국 의회 도서관이 SNS에 문맹자를 위한 〈반야심경〉을 공개해 화제다. 문화 · 교육 전문 매체 '오픈컬처'는 2월 1일 미국 의회 도서관이 페이스북에 공개해 화제를 모은 17세기 일본이 만든 문맹자를 위한 그림 문자 〈반야심경〉에 대해 보도했다.

17세기 일본 불교는 문맹자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그림 문자로 〈반야심경〉을 제작했다. 퍼블릭 도메인 리뷰의 헌터 듀크스는 "대승불교 교리문답을 염불을 통해 알 수 있다면 문맹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며 "1100년대 이후 발음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존재했고, 다음 세기에는 염불이 예술의 형태가 됐다.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제작된 경전을 어떤 발음으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대 중국어로 음차한 동아시아의 불교 경전은 완벽하게 읽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특별한 지식과 훈련 없이는 경전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일본 인쇄업자들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문맹자들을 위한 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문맹자들은 문자나 언어를 몰라도 그림 문자로 경전을 이해하고 염불 독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림 문자 〈반야심경〉은 레부스 원리를 이용했다. 레부스 원리란 예를 들어 'treason(반역죄)'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상형 문자 나무(tree)와 태양(sun)을 나란히 그려 놓고 각각 한 음절을 소리 내어 단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림 문자 〈반야심경〉은 당시 농경사회에 익숙한 농기구, 동물, 신화의 인물들로부터 그 이미지와 음절을 끌어냈다.



타치바나 난케이의 토자이 유키(1795년) 반야심경. 사진출처=오픈컬처

듀크스는 "이 그림들은 특정 사물이나 생각보다는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대 이모티콘과는 의미가 다르다"며 "하지만 17세기 일본인들은 현대 아이콘과 같이 간결하고 기능적인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특별한 그림문자 경전은 현대인에게 탈문맹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교토 국립박물관의 아카오 에이케이는 "그림 문자 〈반야심경〉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경전"이라고 평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세계 4대 종교 지도자 회의 개최

불교 · 힌두교 등 지도자 120명
부활절 테러 피해 성당 찾아가
피해자 · 유가족들에 위로 전해

스리랑카 네곰보에서 스리랑카 내 4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종교 회의가 열려 화제다. 교황청 해외선교 연구소 '아시아뉴스'는 2월 7일 "스리랑카 국가평화회의 주최로 1월 18~20일 네곰보 지역에서 종교 위원회와 함께 12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종교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국가 평화 평회의(NPC) 대표는 "3일간 진행된 종교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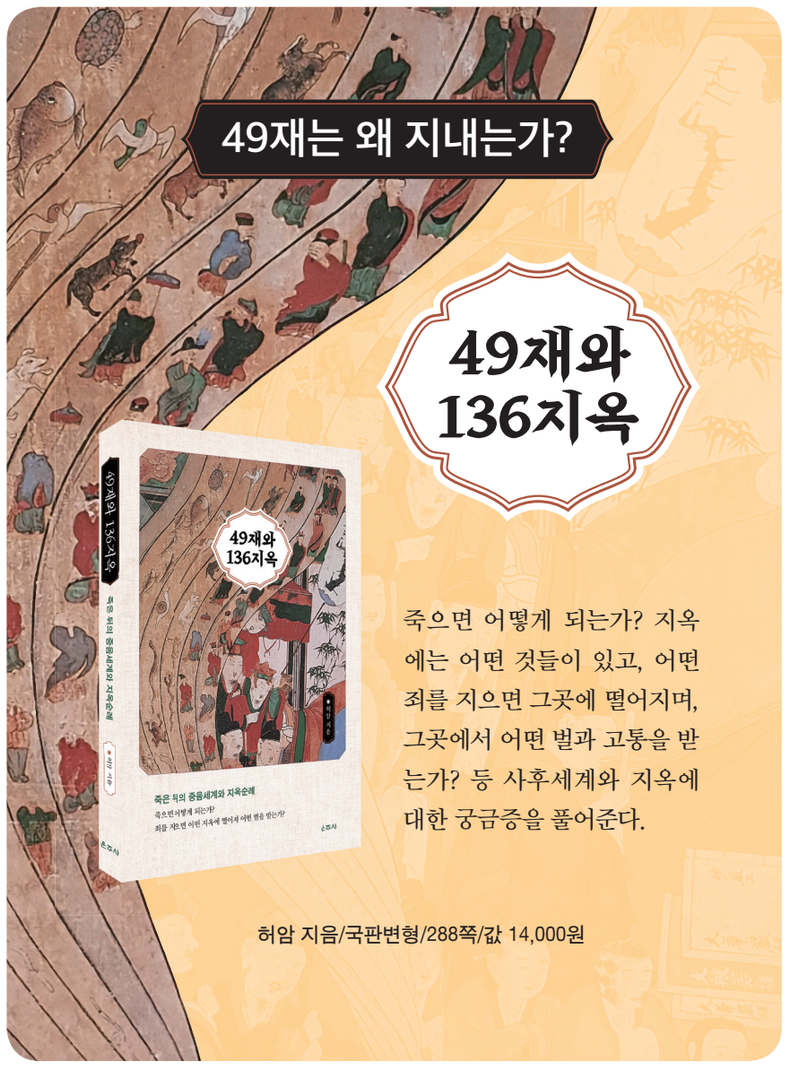
네곰보 주지사는 "이번 종교 회의는 국가 평화 평의회가 종교 간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년간 노력한 결과"라며 "회의를 통해 무슬림, 힌두교, 기독교, 불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우정과 이해, 신뢰가 생겨났다. 일반 시민에게도 평화와 화합 정신을 전해 모두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신행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형제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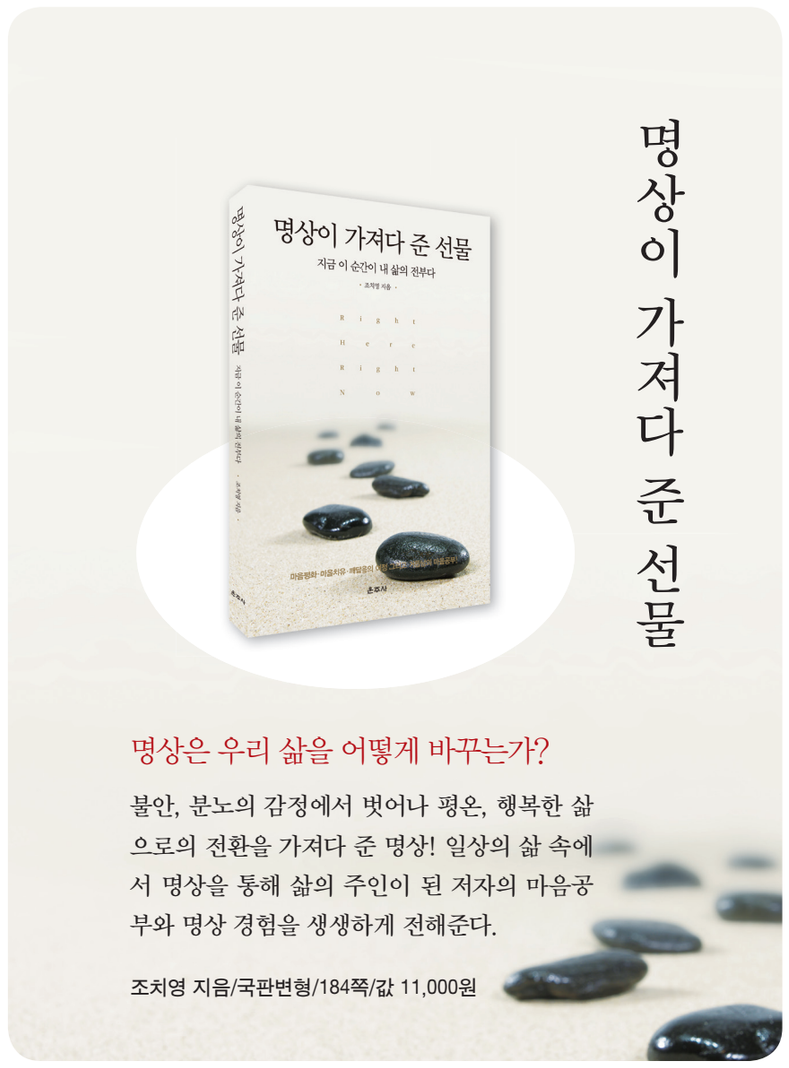
성 세바스티아노 테러 추모비 앞에 선 스리랑카 내 4대 종교 지도자. 사진출처=아시아뉴스

스리랑카 내 불교, 힌두교, 기독교, 무슬림 지도자 120여 명은 2019년 부활절 자살 폭탄 테러로 피해를 입은 네곰보 카투와피티야에 있는 성 세바스티아노 성당을 방문,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마헨드란 찬드라와디니 힌두교 대표는 "2019년 부활절 테러가 있었던 성당 방문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폭탄이 터진 곳을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테러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말했다.

네곰보 가톨릭 연합 시스완 크로스 신부는 "대부분의 종교에는 극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며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큰 도전과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